

연중 제20주일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루가 12, 49).

기도서 417면 (C해)
제1독서: 예 레 38, 4-6. 6-10
제2독서: 히 브 12, 1-4
특 음: 루 가 12, 49-53

□ 강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태도

이 종 원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신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음 속에서 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죽음을 겪으시고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느껴야 하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조그만 이익과 재미와 욕심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가 12, 51)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재미, 이익과 욕심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진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가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기는 가정의 분열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발길을 막을 수가 없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열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러한 분열도 극복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과 같은 정열이 가슴속에 타올라야 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에 용솨음쳐야 합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그렇지 않으면 덤든지 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덤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므로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말하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험뻐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네게 권고한다. 네가 부자가 되려거든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묵시 3, 15-20).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루가 12, 41).

(연지동 천주교회)



석기시대에서 화학시대까지

지난 8일 이리에서는 근래에 보기도문 큰 시위가 있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을 규탄하는 대집회였다. 경찰서장은 “사정에 의하여”(?) 장인동성당 앞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주최측의 평화적 시위 요청은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급기야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깨진 보도블럭과 피켓의 각목이 최루탄과 뒤편벽이 되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성직자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몸으로 힘의 맞섬을 맞았어도 핏방울이 튀기고 부상자가 나왔다.

꼭 이래야 되는가? 힘의 맞섬은 결코 바람직한 일일 수 없다. 우리는 맞섬의 이유를 냉정히 찾아 보아야 한다. 그 첫째는, 평화적 시위를 힘으로 막으면 된다는 당국의 단순한 대응방식 때문이다. 당국이 주최측과 협의하여 일정한 거리에서의 평화적 시위를 멋있게 호위(에스코트) 해준다면 시민들은 당국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다는 말인가? 아마 일선 당국자에게 아무런 재량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둘째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일기용변하려는 데에 있다. 그래도 명색이 국민의 대변기관이라는 국회는 「성고문」 사건과 같은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러니 뜻있는 국민이라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사실 참으로 중대한 원인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감추어서 들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 그리고 고름은 살이 안되면, 아프더라도 쥔 것은 쥔야 한다.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말자. 평화적 시위도 막지 말자. 우리는 유신말기에 여러 차례의 평화적 시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지레 겁먹지 말자. 제발 서로 힘으로 맞서지는 말자.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어쨌던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성난 소리를 들으시오

사랑의 다리를 놓읍시다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다양한 형태로 소외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복음적 청빈을 실천하므로써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천주교 전주교구 산하의 가톨릭 사회복지회입니다.

본 사회복지 후원회에서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고저 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나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요한1서 3,18)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1. 영세민(농촌개발 포함) 후원 : 정부에서 주는 혜택(노랑, 녹색카드 소지자)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며 결손가정을 우선적으로 가정의 제반 문제를 협조하고 있음.
2. 병자 후원 : 진복의대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및 환자 가정을 만나며 이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협조함
3. 나환자 후원 : 교구내 4개 정착마을과 재가 환자들을 위하여 이리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4. 지체장애자(무지개가족 포함) 후원 : 사회의 그늘에 묻혀있는 장애자를 중심으로 군산지역, 전주지역, 하나

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임시거주지인 무지개 가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방문을 통하여 장애자들의 제반 문제를 협조함.

5. 정신질환·정박아(작은 자매의집) 후원 : 장계천주교회 내에 아담한 작은 자매의 집에는 현재 7명의 정박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신요양원을 설립키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임(매지는 이미 확보됨).

6. 일반후원(아동·청소년·노인복지) : 가장 힘이 필요로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는 계속적인 협조보다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협력하고 있음.

*후원지향(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위의 일들 가운데 자자는 지향하고픈 원의대로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회비를 보내면 본회는 반드시 그 의향대로 쓰게 됩니다.

*가입은 어떻게? :

본 사랑의 다리 회원이 되시고저 하시면

[520]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전주시 전동 2가 77 ☎ 2-5290

편지나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팸플렛과 대체용지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회비 :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 회비 납입방법 : 우편대체 400010-31-9036229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앞

□성서교실 ㉞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가 12:49).

49~50절은 루가의 특종기사(記事)이다. 51~53절은 마태오의 제자 파견의 기사(記事) 가운데 나오는 병행기사(並行記事)이다(마태 10:34~35). 이것은 Q자로서 루가의 것이 마태오의 것보다 더 자세하다.

지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불」(행 2:3)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불」(루가 3:16~17) 또는 51~53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 집안의 분열투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하늘 나라에 대한 정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불」은 「복음의 불」이다.

「불」이라고 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학(哲學)과 교훈(敎訓)이 아니고, 「태워버리는 불」(히브 12:29)인 하느님의 아들의 복음으로서 모든 죄, 「더러운 것」을 짚그리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복음이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일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51~53절에 나오는 「가정의 분열」은 그 한가지 좋은 예(例)이다. 예수는 이 「불」이 훨훨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가 지상에 던진 「불」은 반드시 타오르게 되어 있다. 그것은 시간(時)의 문제이다. 예수는 여기서 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세례」는 「수난」(마르 10:38)이며 「십자가」이다. 이때의 예수의 마음은 제세마니에 있어서의 마음과 같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여 주소서」라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요한 12:27).

예수는 자칭 「방화인」(放火人)이라고 했다. 이 「불」이 일단 불으면 그것은 건잡을 수 없게 된다. 전 세계에 불티가 튀어가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은 「평화」와 「기쁨」이 메아리치기에, 이것이 미치는 곳에는 싸움과 분쟁과 불화가 생긴다. 바로 이것이 「불」인 것이다. 참다운 「평화」가 있기 전에 「불」의 「세례」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고소한 햇김의 맛

삼진맛김

신안양의 양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질관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본사 및 공장 : 목포시 동명동 1-194
(☎ 42-4900, 43-2750)

전주판매점 : 진주힐 데리점 (☎ 2-4518)
유립상회(중앙시장 내) ☎ 4-7905

이경내과의원

내과전문의 이 경(안젤라)

효자동 삼거리

☎ 6-7188



교 구 소 식

1. 사제평의회 : 19일(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사제어머니 모임 회의 : 20일 오후 2시, 장소-강덕행 신부님 어머님택(신수당)
 3. 제10기 예비자교리반 개강(가톨릭 신앙강좌) : 개강-9월 5일(금) 오후 7시30분
접수 및 문의-교육국(5-0041)
 4. 목요성서 개강 : 여름방학을 마치고 강의를 속개하면서 아울러 새로운 형제·자매를
기다립니다
개강일-21일(목)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장소-문규현 신부님
 5. M·E 주말 제14차 30쌍 입소 : 22일~24일, 축하합니다
 6. 성소자 모임(신학생과의 만남) : 23일(토) 오후 1시, 장소-신리 포도원
집결-가톨릭센터(오후 1시 출발), 회비-500원
- ☆ 축! 영명 성 베르나르도(20일) : 소순형 신부님 축하합니다

교사학교 개설 : 초·중·고교 교리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 ① 과목 : 성서, 교리교수법, 전례, 프로그래밍, 레크리에이션, 리더쉽, 청소년 이해, 상담지도론, 청소년활동
- ② 일시 : 1기-1986. 9. 1~13, 1986. 11. 3~15(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2기-1987. 1. 12~18(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 1·2기중 선택
- ③ 수강료 : 2만원
- ④ 접수 : 1기-8월 18일까지, 2기-12월 12일까지, 교육국으로(5-0041)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31 : 1~4 복음 : 루가 17 : 1~4

잡 간!

뜨거운 여름 열기만큼...

성서공부가 한창이다. 순창본당(주임 엄기봉 신부)에서는 금년 봄부터 성서공부를 시작, 성서 40주간을 마치고 이제 중요한 성서 대목을 읽고 실생활과 성서 말씀을 비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매주 수요일(본당신자 대상)과 목요일(공소신자)에 실시되는 이 성서공부 시간은 많은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요즘 하느님 말씀에 대한 평신도들의 열렬한 공부가 여러 본당에서 나름대로 열심이지만, 농촌이라는 어려운 여건과 바쁜 틈을 하느님 말씀과 함께 보람있게 보내는 순창 신자들의 성서공부 시간은 다른 그 어느 본당 보다는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기에 때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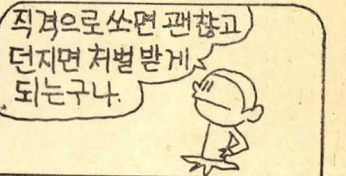
시원한 이야기 한 토막

장수에서 전주 오던 길, 아슬하게 꼬불꼬불한 모퉁이를 불별같은 여름 땀방울을 받으며 버스가 내려오는 동안, 한 어린이가 떨기가 났나보다. 체면없이 마구 토할 때, 주위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피하느라 소란했고, 코를 움켜쥐며 얼굴들을 찡그렸다.

그때 한 청년이 재빨리 안내양에게 비닐봉지를 얻어와 어린이 등을 두드려 주었고 또 자기 가방에서 큰 수건을 꺼내어 어린이 얼굴과 손, 그리고 버린 옷을 깨끗이 닦아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태연스레 전주까지 왔다. 내리기 전 그 청년에게 좋은 일 했다고 말을 건네니, "저는 레지오 단원입니다. 이번주 활동지시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였기 때문에..., 실천할 기회를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끝을 흐리며 오히려 수줍어했다. 종종히 걷는 그의 뒷모습이 아름다웠다.

오늘, 이 조그만 사건(?)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요십이 (680) 김병오



『알리는 글』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땅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금을 필요로 합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번호
조흥은행 702-1-091302

현대병 치료의 신약

영 지

이리시 월성동
(해바라기농장 앞)

성심 영지 농장

☎ 3-9513

김프란치스코·배아네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안과 전문의 마 기 환
한남회(비리시타)
☎ 75-2203



(오거리·한일은행 건너편 명동리부과 2층)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동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끈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축! 영세자들에게 모두 축하합니다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 사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2. 본당 성지순례 20일 남았습니다: 각 책임부서에서는
최종점검을 해주시고,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은 20일
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성지순례 봉사단 모임: 21일·22일 저녁 8시 모임이
있습니다
4.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5. 본당사무실 임시 이전: 본당사무실 보수공사 관계로
당분간 본당사무를 교육관에서 봅니다
6. 공소 순회미사: 23일 저녁 8시, 왕정리공소
7. 구역장 임명: 인후아파트 11구역장-황능자, 12구
역장-오군자
8. 금주의전례: 해설-최명자, 독서-봉헌-노영석 부부
신자기도-문명식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차주의전례: 해설-박중주, 독서-봉헌-노원규 부부
신자기도-임영빈 부부, 촛불봉헌-김환창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71,290원 교무금: 164,000원
신축헌금: 8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월
수녀원

- 1. 부녀회: 21일 오전 10시
2. 재속형제회(삼회): 다음주일 오후 2시
3. 수녀님 휴가: 18~23일
3. 첫영성체 자모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 교무금 미수: 완납해 주세요
6. 증 모래 1차, 자갈 1차: 양규철·김종철씨
차량(모래자갈 실어오는데)-한진공업사 최소피아씨
화분(소철)-정마리아씨, 화분받침 3개-정누리씨·
박아네스·박헬레나, 꽃대-이로사씨
7. 금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이기배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봉헌-강희술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2,895원 교무금: 632,96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산청 성심인애원 방문: 무사히 마쳤습니다
2.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9월 4일
축하식-31일 연중22주일 공식미사 중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드립니다
3. 감사: 본당의날 행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
신 신자 여러분께
4. 청년회 수련회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5. 본당 울뜨레아: 20일 저녁 8시

- 6. 우정의날 모임: 27일 저녁미사 후
(본당 교우의 일치를 위해서)
7. 전례교육 및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전례에 관심있으신 전신자 대상
8. 성가연습: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성가를 통해서 신앙을 더욱 굳게 가집니다
9. 신부님 휴가: 18일~22일
19일~22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0,770원 교무금: 84,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축! 영세: 8월 15일에 영세받은 49명의 형제자매
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청년성가대 모집: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4. 감실 구입헌금·송옥선-1만원
5. 수녀님 휴가: 18일~21일
6. 금주전례:
<본당> 해설-김은경,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봉헌-진성복 부부
<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김광탁 ②박병환
봉헌-이춘원 부부
차주전례
<본당> 해설-남정호, 독서-①이정빈 ②김낙균
봉헌-강기호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김나섭 ②오수환
봉헌-안재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268,060원 2성당-95,850원
계-363,91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년

-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4. 예비자교리(금요일반): 22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48,400원 교무금: 659,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예비신자 교리: ①시작-31일
준비물-신·구약 합본성서·초대받은 당신
교리시간-일요일 오전 11시30분·
화요일 오후 8시30분
중·고생-일요일 오후 5시30분
2. 오늘의 모임: 성모회·울뜨레아
□ 지난주 봉헌금: 530,150원 교무금: 409,000원